

한·미간 쇠고기 파동, 도대체 어찌자는 건가?



김종오

본회 통일회원

한·미간 FTA체결을 앞두고 한우 농가들이, 아니 어느 의미에선 전체 농민들이 대미 굴욕이다 조공이다 하면서 거세게 항의하며 농성중이다. 농민단체의 수뇌부에서 이런 모임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정부의 대국적인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농민의 입장에 서서 이를 대변하기 마련인데, 참으로 난감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육질이 좋은 소인가에 대해선 나로서는 주저치 않을 수 없다.

예전에, 중국 흑룡강성의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도급 인사 7명이 우리단체의 초청으로 사나흘 동안 우리나라 농촌 곳곳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간 바 있었다. 그들은 강원도의 깊은 산허리까지 찾아 들어가 ‘한우가 세계에서 가장 육질이 좋은 소요, 그 중에서도 우리 황성 쇠고기가 으뜸입니다’라는 현지 관계관의 얘기를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는데, 경북 북부의 어느 담당관은 ‘우리 예천 참우가 최고입니다’라고 하기를 주저치 않는 당당(?)한 얘기를 또 들어야 했다.

나는 통역을 통해 그들과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되도록이면 ‘한국적’인 것들을 강조했음은 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들이 한국 농촌시찰 마지막 날 밤 이천의 어느 특급호텔에서 있었던 자체평가간담회에서 그들의 단장으로부터 들은 다음과 같은 한마디는 나를 정말 부끄럽게 했다.

그들의 통역은 흑룡강성에서 온 조선족으로 경상도와 함경도 사투리가 섞인 유창한 한국말로 나를 꾸중하듯 얘기 했다.

“한 마디로 자기나라 것이 최고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우리들에게 한국 소 자랑은 정말 웃기는 얘기다. 어설픈 선비가 공자 앞에 문자 쓴다더니, 흑룡강 소를 두고 한국소가 세계 제일이라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청자 측 인솔단장인 나를 힐금힐금 건넌다보기도 하면서 그들은 박장대소하기를 여러 차례,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온 높은 도수의 술잔을 연시 비워대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니 하오마’와 헤어질 때의 ‘짜이 쨌’ 밖에 모르는 나로서는 솔직히 그 통역의 다음 말이 뭘까 하고 은근히 겁부터 나기까지 했다.

“우리 흑룡강성의 소들은, 농사철 한두 달 이외에는 그 드넓은 초원에서 제 맘대로 풀을 뜯고 연애를

하고 새끼를 칩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먼저 한국소들이 불쌍하다는 첫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목이 묶여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기는커녕, 그 좁은 우사(牛舍)에서 앉았거나 서는 일, 사료라는 것도 외국에서 가공해 들여 온 것을 억지로 먹는 정도였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소들의 잉태나 출산도 전부 인공적이라 하니 이것이 어찌 소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쇠고기는 농산(畜産)물이 아니라 공산(工産)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한국 쇠고기가 세계 최고라니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뭘니까?”

단장의 얘기에 신바람이 든 그들은 또 박수를 치면서 중국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를 비웃듯이 건너다 보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고 있다.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국을 ‘죽의 장막’이라면서 중공이나 북괴나 소련이나 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정작 그 중국의 흑룡강성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 흑룡강성 소들은 그 드넓은 대평원에서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소들은 우사(구치소)에 갇혀 있는 죄수(罪囚/罪獸)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우물 안 개구리마냥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농정의 울타리를 넓혀 볼 때가 도래했다고 본다.

옆친데 댁친격 이라고나 할까, 또 날 약 올리느라 작정이라도 했는지, 어제(4/24) 날짜 大正日報 여백란엔 ‘한국 소(牛)’란 제하의 글에서 大正 政治部長은 “맑은 우리의 자연에서 자라고 우리 것만 먹고 자란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에 밀릴 위기에 있다”고 했다.

그래 좋다 남이야 비웃든지 말든지, 박장대소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들끼리는 한국 쇠고기 맛이 세계 제일이노라고 목청껏 떠들어 대 보자. 옛말에도 ‘우리들 문둥이끼리는 반갑다’고 하지 않았던가?㉞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농업기술회보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회보를 위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 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